

인텔 오픈 플랫폼 부분 프로젝트 제안서

갈릴레오 보드를 활용한 임베디드 S/W개발

작성자: 신혜수

작성 날짜: 2014년 7월 26일

프로젝트명	한석봉(난 말을 할 테니, 넌 받아 적거라)		
리더	박상열	팀원	김호연지기, 박혜련, 신혜수
예산제작기간	2014.08 ~ 2014.10		
예산제작비용	약 18 만원		
필요한 재료	갈릴레오 보드, 블루투스 모듈, 마이크로 SD 카드, 안드로이드 스마트폰, 마이크로폰 모듈		

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소개(작성시 길어지면 페이지 넘겨도 됨)

● 개념

‘한석봉’은 각 회의 참석자의 발언을 정리하여 정해진 양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임베디드 장치이다. ‘한석봉’ 프로젝트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. 첫 번째 단계는 각 회의 참석자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, 회의 참석자의 음성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문자로 변환하는 과정이다.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변환된 문자를 블루투스를 통해 갈릴레오 보드 기반의 중앙장치에 전달한다.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갈릴레오 보드에서 각 문자들을 텍스트 마이닝을 사용해 정해진 양식에 맞는 회의록으로 작성한다.

● 기원원리

‘회의’는 의견을 수렴하는 보편적인 과정이다. 회의는 회의 참석자들뿐만 아니라, 회의 내용을 알아야 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. 이때 기존의 서기가 회의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, 작성 과정에서 서기의 주관적 관점이 들어갈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. 이에 착안하여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장치를 고안하게 되었다.

● 중요기술

자연어처리, 블루투스 통신, 음성인식, 인공지능, 안드로이드 앱 개발기술

● **프로젝트 특징점**

1. 번거로운 작업 없이 기기를 중앙에 위치시켜 놓는 것만으로도 회의를 기록할 수 있다.
2. 서기의 가치판단이 들어가지 않으므로,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다.
3. 각 회의 참석자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성 인식을 하기 때문에, 회의 참석 인원 수의 제한이 없다.
4. 회의 참석자의 바로 앞에 스마트폰을 위치시킴으로써 각 음성이 어떤 회의 참가자의 음성인지 파악하기가 용이하다.
5. 음성을 인식하고 문자로 변환하는 방식이 자동이므로, 사용자가 회의 중에 회의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다.
6. 작성된 회의록을 바탕으로, 회의 참석률 등의 정보를 분석하기 때문에 회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.